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동계전지훈련 최적지 광양 전지훈련팀 손님맞이 분주

공설운동장·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정비...6개 대회 스포브리그 개최



광양시가 지난해 광양을 찾았던 전지훈련팀이 올해도 다시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히 나섰다.

광양은 전국 제일의 일조량과 겨울철 온화한 기온, 잘 갖춰진 체육 시설, 맛 좋고 풍부한 먹거리로 매년 180여 개팀 7만여 명이 찾는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광양공설운동장의 노후된 우레탄 트랙 8레인을 정비하고, 관람석 의자를 보수해 전지훈련 선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비웠다.

특히 광양을 축구전용구장 인조

잔디를 교체하고 편의시설로 관람석 비가림막과 감독대기실도 설치했으며, 스코어 전광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운동장내 천연잔디가 여름철 폭염으로 고사됨에 따라 잔디를 새로 파종하고 보온덮개를 설치하는 등 잔디생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광양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선수단을 위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마동축구전용구장 의사 교체와 환경정비를 마무리했다.

각 종목단체 협의회에서도 본격적인 전지훈련기간으로 돌입함에 따라 전지훈련팀 유치를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메카'로 발돋움

광장토론회 등 온·오프라인 통해 직접민주주의 나서



순천시는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로 시작한 민선7기가 광장토론회 찾아가는 현장대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나서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7기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내세우고 시작했다. '새로운 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을 혁신하는 것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순천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이나 공무원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자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우선 취임 후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쓰레기 문제였다. 자원순환센터가 문제가 되면서

2·3년 후 순천은 '쓰레기 대란'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허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인 토론회,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는 100일동안 현장조사, 정책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권고안을 담았다. 권고안에는 빠른 시간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등 6대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민선 7기 조직 개편을 통해 자치혁신과에 사회혁신팀과 시민참여팀을 신설한다.

대민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부터 시민중심, 자치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읍면동 2개소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선발 제도를 도입해 낙안변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했다.

실질적 주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민주주의 또한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시민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포용과 혁신으로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끊임없이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 ok 소통1번가를 개설했다.

ok 소통1번가는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시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워크숍 개최

광양시 직장경기부가 최근 1박 2일간 실내체육관과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워크숍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필 육상감독, 이준수 볼링감독 등 각 종목별 지도자와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한 최복음 선수, 2019년 신규 영입선수 8명, 직장운동경기부 관계

자를 포함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워크숍은 축구, 배구, 족구 경기를 통해 선수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선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2019년에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스포츠타시

광양'을 널리 알려 나가기로 다짐했다.

올 한해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제38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단체전 우승, 아시안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 볼링 남자 6인조 금메달 획득 등 각종 전국대회와 전남체전 등에 참가해 스포츠 도시 광양의 위상을 높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순천시가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2014년부터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각각 선정하여 연중 각 나라의 도시를 오가며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2014년에는 한국 광주,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2015년에는 한국 청주,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 ▲2016년에는 한국 제주, 중국 닝보, 일본 나라 ▲2017년에는 한국 대구, 중국 창사, 일본 교토 ▲2018년에는 한국 부산, 중국 하얼빈, 일본 가나자와 ▲2019년에는 한국 인천, 중국 시안,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가 선정된 바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장기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

러낸 경험과 순천만의 생태문화 및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순천다운 비전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준비하여 기존의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추진과 개막막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내년 한국 인천에서 열리는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중국, 일본의 선정 도시와 함께 공식 발표될 계획이다.

순천=황경석 기자

보성다향대축제,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선정



보성군은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9년 '문화관광축제'에서 보성다향대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보성다향대축제는 불과

1년 만에 2019년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로 승격되며 역대 최단기 최우수축제 승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보성다향대축제는 2019년 1억 7000만 원의 예산과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지원을 받게 된다.

'차주소풍'이라는 주제로 올해 5월 한국자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보성다향대축제는 차맛따기, 차만들기, 차마시기 등 컬러콘텐츠를 보강·확장하고 콘텐츠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광장놀이터와 힙터를 조성해 가족단위의 관광객으로부터 큰 각광을 받았다.

특히, 야간에 고즈넉한 공원에서 우아한 차차리를 즐길 수 있는 '월인천강차차리'는 현장평가심사위원으로부터 매우 독창적인 축제프로그램이라는 찬사를 얻었다. 또한, 순금 차잎 보물찾기, 보성차마당, 음점차마실, 북채 인포스팟 등 16종의 다채로운 체험거리로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계의 전문인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축제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광 복지수도 보성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장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